

도교육청, 2024학년도 수능 준비 만전

도내 6개 시험지구서 65개 시험장 운영... 인력 4135명 배치 방역지침 대부분 완화... 코로나19 확진자도 일반시험장 응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수능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6일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능 준비 상황에 대한 준비 상황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먼저, 올해 수능은 오는 16일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5시45분까지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 등 도내 6개 시험지구, 총 65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수능 응시자는 전년보다

295명 감소한 1만6,805명이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전환에 따라 그동안 운영된 병원시험장 분리시험실 등이 대부분 사라졌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도 일반시험실에서 응시할 수 있다. 다만 확진자에게는 마스크 착용 및 별도의 공간에서 점심을 먹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험편의 제공이 필요한 수험생을 위해서는 개인시험실(소수 시험실)도 마련됐다.

특히 모든 시험장에 보건실과 예비 시험실을 설치하고, 보건교사와 응급

구조사를 배치해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하도록 했다. 수험생을 위한 휴게실과 코로나 확진 수험생을 위한 별도 식사 장소가 올해 새롭게 운영된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수능 시험장은 상반기에 확정, 8월부터 방송시설을 포함한 시험장 현장점검을 완료했다.

지난 10월 16일 가동에 들어간 수능 관리분부는 도교육청, 시험지구교육지원청, 수능시험장별로 11월 17일까지 운영된다. 본부는 △수능 세부시험계획 및 업무처리지침 점검 △문답지 운송·보관장소 등 점검 △시험장·시험실·감독관 배치 △답안지 회송 및 보관 △수능 당일 비상상황 대처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올해 수능 시험에는 4,139명의 인력

이 배치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수능 운영 및 시험실 감독관 3,735명, 파견감독관 65명, 경찰관 289명, 소방안전관리관 68명 등이다.

한편 수험생 예비소집은 15일이다. 수능 당일 수험생은 수험표, 신분증, 도시락을 지참하고, 8시10분까지 시험실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되며, 적발 시 당해 시험 전체가 무효 처리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유희선 중등교육과장은 "올해는 코로나19 관련 조치 폐지로 수능 시험 준비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면서 "우리 학생들이 수능을 치르는 데 있어 한치의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도교육청은 6일 진안 장승초·교육지원청·부귀초 농촌유학거점시설 예정지 등에서 2023년 전북교육거버넌스위원회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거버넌스 추진 의제 현장, 두 눈으로 직접

전북교육거버넌스위원회, 진안 장승초 등서 현장 간담회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6일 진안 장승초·교육지원청·부귀초 농촌유학거점시설 예정지 등에서 2023년 전북교육거버넌스위원회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위원들이 거버넌스 추진 의제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거버넌스 위원회 각 분과별 위원 간 소통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전북교육거버넌스 위원들은 어울림학교, 농어촌 작은학교 살리기, 농촌유학 등 거버넌스 주요 의제와 관련한 현장을 찾았다.

이에 따르면 먼저, 진안 장승초에서 교직원 학부모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한 그동안 노력

과 활동에 대해 청취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교직원들은 작은학교의 장점을 살려 학생들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진안교육지원청에서는 농촌유학 활성화 정책에 대해 설명 듣고, 농촌유학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진안교육지원청과 진안군은 지난 10월 5~6일 '진안고원농촌유학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농촌유학 예비협력학교인 부귀초등학교를 방문해 가족 체험형 농촌 유학 주거시설과 커뮤니티 공간, 예정부지 현황을 파악하

고, 교육과정과 학교 환경 등을 살펴봤다.

전북교육거버넌스 박승문위원장은 "이번 현장간담회는 전라북도의 미래가 달린 교육현장을 찾아 교육공공체 구성원과 정책을 공유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 전북교육거버넌스위원회가 더욱 활성화돼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은 "이번 현장간담회를 통해 전북교육거버넌스위원회가 교육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 더욱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전북교육청은 거버넌스위원회와 함께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내 손으로 직접... 나도 그림책 작가'

정남초, 꼬마 작가들과 함께하는 꿈잔치 발표회

정남초등학교는 지난 3일 꼬마 작가들과 함께 하는 정남꿈잔치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학급별로 1년 동안 동화 작가와 담임 교사의 협동으로 진행한 '나도 그림책 작가 프로젝트' 수업의 결과물인 그림책 발표회와 악기 연주(칼림바, 우쿨렐레), 연극, 댄스, 돌봄교실 협동 미술 작품 등 다채로운 활동이 이뤄졌다.

이에 따르면 꼬마 작가들이 그림책을 발간하고 직접 그림책을 발표하면

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정남초등학교만의 색다른 교육과정이다. 매년 학생들이 한 권씩 그림책을 발간,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영순 교장은 "중간놀이시간이나 점심시간이면 전교생이 나와 축구를 하거나 놀이 등을 통해 웃고 즐기고, 또 수업시간이면 서로를 배려하며 배워가는 학생들이 너무 대견스럽다"며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행복한 학



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남초등학교는 2018년 3월 1일 전북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어울림학교에 선정, 정읍시내의 한솔초등학교와 공동통학구로 운영되고 있다.

/정은성 기자

'경계 밖의 인간 무리'... 전주대-기독교철학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단장 변주승)은 지난 4일 '경계 밖의 인간 무리'라는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기독교철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국내 학술대회는 지난 4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대학 본관 222호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변주승 단장과 한국기독교철학회 회장 김종걸 교수대



전집례신학대의 개최사를 시작으로 김명희(전주대)·오유석(공주교대) 교수의 사회로 1·2부에 걸쳐 총 7개의 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정은성 기자

물 전기분해로 그린수소 생산 가능

전북대 유동진 교수팀, 비귀금속 전기촉매 개발 기존 백금·탄소 촉매 대체... 생산 단가 낮춰



유동진 교수



밀란바부포델 박사

전북대학교 유동진 교수팀(생명과화학)이 물을 전기분해해 그린수소 생산을 가능케 하는 전극소재 제조 혁신 기술을 개발해 세계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6일 전북대에 따르면, 지난 3일 유동진 교수와 밀란바부포델(Milan Babu Padda) 박사가 극한 알칼리수와 바닷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비귀금속 전기촉매를 개발했다. 이는 일반적으로 귀금속(백금)이 사용되는 고가의 수소촉매의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그 우수성이 입증, 소재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인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 최신호에 게재됐다.

이 기술은 단일단계의 'in situ 열수공정(hydrothermal process)'에 의해 니켈 위에 구축된 몰리브덴 셀렌화물-니켈 셀렌화물(MoS₂-NiSe) 코어-셸 나노와이어 어레이의 이중구조를 준비하기 위한 새로운 합성경로를 제시했다.

이렇게 합성된 코어-셸 나노와이어 어레이는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백금-탄소(Pt/C) 촉매에 비해 소재의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어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유망한 촉매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 입증된 새로운 촉매의 설계 개념은 수소의 대량생산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밝힌 유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입증된 새로운 촉매 설계 개념은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 광범위한 에너지응용 분야에 사용되는 비귀금속 전이금속 다칼코게나이드(TMDs) 이중구조 촉매 개발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방법은 기술적·경제적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그린수소 생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탄소중립실현의 가속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동진 교수는 현재 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 학술부회장으로 교육부가 지원하는 BK21 FOUR(수소에너지융합기술혁신인재양성사업) 단장을 맡고 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덕신소방서와 합동으로... 학생 지진 대피훈련 등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2023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재난 발생 초기 신속한 대응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범국가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이다.

이에 전북대는 이번 훈련을 대학본부 보좌자 회의의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재난대응에 대한 학내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덕신소방서와의 합동훈련도 실시했다.

또한 학생 대상 지진에 대비 훈련과 관리감독자 대상 안전교육 특강을 진행했고, 전북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을 통해 구성원들이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 응급상황에서의 훈련을 최소화하는데 의미를 뒀다.

양오봉 총장은 "재난은 예측할 수는 없지만 대비할 수는 있다"며 "반복적인 훈련과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우리 구성원들의 재난 대응 능력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군산부설초등학교 운동장을 달리고 있는 김신철 교장(사진 왼쪽)과 달림이부 학생들.

'매일 아침 아이들과 운동장 한바퀴'

군산부설초 김신철 교장·달림이부

교장 선생님이 매일 아침 학생들과 함께 학교 운동장을 달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그 주인공은 학생 24명으로 구성된 군산부설초등학교 달림이부와 김신철 교장이다.

군산부설초에 따르면 달림이부 학생들은 김신철 교장의 지도하에 매일 오전 8시 30~50분까지 20분간 운동장 10바퀴인 약 1200m를 달린다. 그 결과, 지난달 28일 군산 나포 십자 들머리 달리기 대회에서는 달림이부 모든 학생이 5km를 완주, 1~8등을 차지하기도 했다.

한편 김신철 교장은 2023 서울 마라톤 겸 제93회 동아 마라톤 풀 코스 SLB-4를 완주하고, 제22회 김제새마을

지평선마라톤대회에서는 Half마라톤 부문 1시간 34분 13초 92를 기록한 야마추이 마라톤이다.

그는 "코로나 이후 활동 부족으로 저하된 체력 증진과 건강을 위해 달림이부를 운영하게 됐다"면서 "학생들의 기초체력 및 심폐지구력 증진을 물론, 활기찬 학교생활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교장은 "앞으로도 매일 매일 학생들과 달리면서 학생들에게 먼저 실천하는 모습, 꿈을 향해 열정적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면서 "매일 아침 학생들과 함께 뛰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나에게도 큰 기쁨과 행복"이라고 강조했다.

/정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